



- 지정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상세리 93(충남역사박물관 소장)
- 시 대 : 1896년(고종 33)

## 공주 상세동 산신도 (公州 上細洞 山神圖)

상세동 산신도는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마을 산제당에 봉안해 온 산신도로, 1896년(고종 33)에 제작되었다. 상세동산신도는 마곡사에서 그려졌는데, 마곡사는 원래 '남방화소(南方畫所)'라 불렸을 정도로 불화(佛畫) 제작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이었다. 상세동 산신도는 그 중에서도 대표작인 금호당 약효를 중심으로 한 5명의 비구승들이 마곡사 심검당에서 그린 것으로 가로 98.5cm, 세로 94cm 크기의 견본채색화(絹本彩色畫)이다. 노송과 기암괴석, 폭포를 배경으로 중앙에는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을 배치하고, 그 오른쪽에는 남녀 두 동사를 그려 넣었는데, 호랑이가 산신을 보좌하듯 나란히 밀착하여 앉아있는 이러한 협시형(挾侍形)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산신도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한편 상세동 산신도는 조성 내력을 기록해 놓은 화기(畫記)가 있어 제작연도와 제작자, 봉안 장소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은 물론 고종 황제를 비롯한 왕실의 안정을 함께 축원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회화적 가치도 높아 마을에서 봉안해 온 산신도로는 드물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되었다.

상세동에서는 한 해에 봄·가을로 두 차례 산신제를 시는데, 음력으로 정월과 10월의 초하루에서 삼일 사이가 된다. 1970년대 무렵까지 산신제는 세동리 주민뿐만 아니라 산향계에 가입한 인근 지역의 계원들까지 참여하는 큰 제사이자 마을 잔치로 치러졌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통 신앙의 의미가 퇴색하고, 계원도 줄면서 예전 같지는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세동리 산신제의 역사와 의미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산신제를 계승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